

# <규한>의 근대의식 연구

이정숙\*

## 〈차례〉

1. 서론
2. 근대적 교육을 통한 근대적 지식 추구
3.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 지향
4. 여성의 탈주체화와 향수로서의 여성
5. 결론

## 1. 서론

1910년대의 연극계는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한 창극과 일본 신파연극을 이식 모방한 신파극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인 창작 희곡이 발표된다. 창극과 신파극의 경우는 당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고전 레퍼토리를 활용하거나 일본 신파소설의 번안이 중심을 이룬 반면, 창작희곡의 경우는 당대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근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가운데서 이광수의 <규

\* 경북대 강사

한>은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조혼에 대한 비판과 여성 교육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을 주장하여 이후 교육과 결혼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초기희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규한>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남성작가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근대적 변화에 직면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한>은 구여성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의 측면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당시의 지식인과 구여성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 희곡에 대한 논의는 <규한>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극의 결말부분에 언급된 ‘개인의사’의 문제를 높이 평가하여 <규한>을 근대희곡의 효시로 보기도 하며,<sup>1)</sup> 영준의 위선적 태도에서 진정한 근대의식을 찾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전통과 결별하는 것이 근대가 될 수 없기에 ‘유사근대의식’일 뿐<sup>2)</sup>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근대와 전근대, 전통과 신식의 갈등에서 다소 수세적으로나마 ‘전근대의 패배’를 선언하며 전근대적 가치와 결별<sup>3)</sup>하고 있다는 지점에는 동의한다. 이처럼 <규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근대적 개인의지를 내세워 전근대와 결별하는 영준에게서 근대성의 징후를 읽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전근대적 가치와 결별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광수는 <규한>에서 전근대와의 결별을 주장하며,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자신의 근대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광

1) 이두현, 『한국신극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6.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2) 서연호, 『한국신극사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69.

\_\_\_\_\_,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출판부, 1996.

3) 이승희, 「초기 근대희곡의 근대적 주체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2집, 2000, 7~8면

수의 근대기획은 영준의 시선을 대변하는 부인 이씨의 대사와 극의 결말 부분에 제시된 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이 근대적 의식을 받아들일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남성들을 통해서이다. <규한>의 경우도 영준을 통해 근대적인 의식이 여성들에게 전해진다. 근대적 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여성의 근대로의 변화가 남성이 규정지은 범위 내에서의 변화 또는 남성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10년대 근대적 상황을 접하면서 변화되는 교육관과 결혼관의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규한><sup>4)</sup>을 대상<sup>5)</sup>으로 작품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규명하려 한다. <규한>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남성작가에 의해 재현된 여성이라는 측면과, 극이 귀결되는 지점이 근대적인 개인을 드러내기보다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근대적 여성관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성 담론에 성이라는 함수가 개제될 때 그 담론들이 어떻게 굴절되고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 복잡하게 얽힌 모순과 갈등의 계기들을 드러내는가<sup>6)</sup>를 추적하면서 남성이 쓴 텍스트가 여성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가를 문제 삼으려 한다. 즉 남성에 의해 재현된 여성은 필연적으로 남성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서 남성의 관점에서 주어진 여성의 근대 문제를 짚어 보려한다.

<규한>은 서구적 근대와 일본적 근대 그리고 한국적 전통이 상호 작

4) 이광수, <규한>, 『학지광』, 1917. (이 글에서는 『이광수전집』 8, 삼중당 1971을 대상으로 함.)

5) 이광수는 <규한>(1917)과 <순교자>(1920) 두 편의 희곡을 남기고 있는데 두 편 모두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관과 여성의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교자>는 <규한>과 달리 선악의 대립이 주는 갈등관계와 종교적인 문제가 중심을 이루는 극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6)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이광수의 독특한 근대의식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남성이 규정한 범위에서의 여성에게 허용된 근대화의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지점을 짚어가면서 철저하게 남성이 중심이 된, 남성의 논리가 중심이 된 근대의 기획과 남성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근대적 여성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규명하려 한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근대적 결혼과 근대적 여성 교육의 문제를 성적지배와 여성성의 관점<sup>7)</sup>에서 바라보면서, 이광수의 근대의식의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근대적 교육을 통한 근대적 지식 추구

李 伯林이란 데가 얼마나 먼가요?

崔 二萬限五千里 된대요.

李 거기도 東京 모양으로 배 타고 가나요?

崔 거기는 배 타는 데는 없대요. 앞 停車場에서 車를 타면 발에 흙 아니 묻히고 죽 간다는대요.

李 에그마니나! 二萬五千里라니! 鐵道가 길기는 긴 게외다. 누가 다 그 鐵道를 놓았는고?

崔 長春이 어딘지 長春까지는 日本車 타고, 거기부터는 아라사車 타고, 그다음에는 德國車 타고 간다는데, 여기서 떠나면 한 보름 가나 볼데다.

李 車 타고 보름이나 가면 하늘 붙은 데겠지요?

順 에그, 兄님! 地理도 못 배우셨나봐! 땅덩이가 둥그렇지 넓적한가요.

李 우리야 學校에를 다녔어야지.

7) 이종영의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관점과 리타 펠스키의 향수로서의 여성(앞의 책)의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

崔 참, 우리도 學校에나 좀 다녔으면 집에 오면 늘 無識하다고 그러면서  
工夫를 하라고 하지마는, 글썽 이제 어떻게 工夫를 하겠소  
李 참 그래요. 저도 밤낮 편지로 工夫해라 工夫해라 하지마는 어느 틈에  
工夫를 하겠습니까. 또 設或 틈이 있다면 가르쳐 주는 先生이 있어야지  
요.<sup>8)</sup>

이광수의 일본 유학기간에 발표된 <규한>은 근대적 세계와 근대적 지식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으로부터 극이 시작된다. 각각 백림과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는 구여성 이씨와 최씨의 대화를 통해 가정 안에 머무르던 여성들의 시각이 남성들의 공간인 백림과 동경을 인식하게 되면서 변모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성들의 근대적 경험이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변화를 경험한 남성의 시각이 여성의 삶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규한>에는 이전시기 신파극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달리 학교나 공부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는 구여성 이씨와 최씨는 배우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학교교육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습득해서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여성들 또한 근대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성들의 근대적 변화의 계기가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변화가 남성이 바라는 지점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적 학교교육과 일본유학까지 경험한 남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학교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가정에만 머무르는 구여성들은 무식한 존재이며, 말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닌’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구여성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

8) 이광수, 앞의 책 532 면

기에서의 교육이란 전통적인 가정교육과 달리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한 근대적 교육을 의미한다. <규한>의 여성들은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전통적 가정교육을 받은 여성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교육은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지식의 권위에 밀려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권위를 상실해가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며,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과 근대적 지식이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한>에서 공부와 근대적 지식은 모든 문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남편이 몇 년씩이나 일본으로 떠나 있으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도 공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해해야 하며, ‘좋은 공부 하라’ 다니는 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서 기생을 만나는 행동도 정당한 것이 된다. 또한 근대적 지식은 결혼을 파기하는데도 일종의 권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공부하러간 남편을 기다리는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일방적인 편지이다. 구여성인 이씨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영준은 이씨가 읽지도 못하는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한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씨에게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한다는 사실도 문제적이지만 이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 의사’의 문제를 들어서 혼인 무효임을 일방적으로 통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문제적이다. 편지 한 장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하는 영준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신적인 조강지처를 일방적으로 쫓아버리는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봉꾼 남편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설에서와 달리 <규한>에서 영준이 아내를 내쫓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사라는 근대적인 지식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자유의사’라는 근대적 지식이 가지는 권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규한>에서 이광수는 여성에게도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조건으로 여성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글과 말을 잘 하는’ 근대적 여성이 되기 위한 여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규한>은 각각 백림과 동경으로 유학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씨와 최씨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특별한 갈등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갈등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구여성들의 대화를 극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극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 구여성들의 대화로 극을 전개시키면서 그들의 의식 변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극중에서 이씨와 매파가 전하는 이웃 부인의 처지는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崔 너무 無識하다 無識하다 하니깐 집에 들어 와도 만나기가 무서워요. 서울이랑 일본이랑 다니면서 工夫하던 눈에 무슨 잘못하는 것이나 없을까 하고 그저 暫時도 맘 놓을 때가 없어요.

李 그래도 白先生께서는 우리보다는 좀 性味が 부드러우시고 多情하신가 볼데다마는 우리는 너무 性味が 急해서 조금이라도 맘에 틀리는 일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에구, 저것도 사람인가」 하니깐 차라리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속이 편해요. (하고 눈을 씻는다)<sup>9)</sup>

---

9) 이광수, 앞의 책 532면

老 …(하고 말을 낮추어) 저 載寧 金德川의 아들—日本 가 있는 金德川의 아들이 棄妻를 하였다. (兩人은 驚愕하여 바느질을 그치고 老婆를 본다)  
老 아무 죄도 없는 것을 父母의 命令 아니 服從한다는 罪로 同年 여름에 離婚을 하였다. 그래서 그 새색시가 올면서 親庭에 쫓겨 갔더니. 그 새색시의 어머니가 憤이 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金德川네 집에 와서 사흘이나 왕왕 치울면서 내 딸 왜 죽였는가고 야료를 하였답데다. 저런 變怪가 어디 있겠소.

李 나 같으면 죽고 말지, 왜 親庭에 돌아 가겠노.

老 그렇지 않아. 참 새색시도 우물에 빠지라는 것을 누가 붙들어서 살아 났다는데.

崔 아니, 父母에게 不順을 하였던가요

老 남들의 하는 말이, 三年이나 남편이 日本 가서 아니 오니까 어서 데려다 달라고 좀 하였던가 몹데다. 그게니 왜 안 그러겠소, 남편 하나 믿고 시집살이하는데 시집 온 지 한달만에 日本 가서는 三年이나 아니 돌아오니, 데려다 달라곤들 왜 아니하겠소

李 아무려나 머리 풀고 서로 만난 아내를 어떻게 버리노, 人情에 차마.

崔 日本 가서 日女를 얻은게지. 글 잘하고 말 잘하는 日女한테 홀리면 우리 따위 無識匠이야 생각이나 할랍디까?<sup>10)</sup>

교육을 받지 못해 남편으로부터 사람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이씨와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하는 이웃부인의 상황은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극은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극적인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드러내기보다 구여성들의 대화를 통해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극을 구성하게 될 경우 관객에게 극을 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지만 이광수가 <규한>을 통해 의도한 것은 극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극을 통해 자신의 근대의식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계몽시키는 것이

10) 이광수, 앞의 책, 534~535면.



었다. 즉 자신의 논설을 극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관객들을 계몽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흥미보다는 여성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계몽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극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논설이 아니라 극을 통해 관객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논설을 구체화해서 들려주는 구여성들의 토론이라는 방식의 전개가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와 이웃여자의 상황을 토론식으로 보여주는 구조는 이광수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당시의 신파극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신파극의 경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갈등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광수도 이러한 신파극의 관극체험<sup>11)</sup>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규한>의 토론식 구조는 이광수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극작술의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광수는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사람 아닌 존재로 취급받게 되며,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여성들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여 여성들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규한>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구여성이 그 충격으로 미쳐버리게 되는 흥미위주의 극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여성이 겪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어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씌어진 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해 갈등의 상황을 설정하기 보다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을 진행시키면서 관객에게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은 당시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선호하던 신파극의 관객성향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한>의 관객은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찾는 1910년대

11) 일본 유학시절 이광수의 일기의 한 대목을 통해서 이광수 또한 신파극 관극열의 세례를 피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양승국, 『한국 근대문학 형성에 미친 일본 신파극의 영향』,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2001, 248~249면 참조).

보편적인 연극의 관객으로 보기보다 논설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대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이광수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여성관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상적으로 설정된 여성관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근대의식인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극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주려 한 것이다.

### 3.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 지향

<규한>을 통해 이광수가 주장하는 지점은 결국 낭만적 사랑을 통한 근대적인 결혼이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봉건적 결혼의 지속이 아니다. 극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따라 결혼한 여성이 겪게 되는 불행을 보여주다가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崔 ...그대와 나와 서로 만난지 이미 五年이라. 그때에 그대는 十七歲요, 나는 十四歲라-자, 나 討論은 또 왜 나오노-나는 十四歲라. 그때에 나는 아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婚姻이 무엇인지도 몰랐나니, 내가 그대와 부부가 됨은 내 自由意思로 한 것이 아니요-

李 자유 의사가 무엇이냐요

崔 나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편지에는 모르는 소리만 쓰기를 좋아하것다 -自由意思로 한 것이 아니요, 전혀 父母의 強制-強制, 強制-強制로 한 것이니, 이 行爲는 실로 法律上에 아무 效力이 없는 것이라-

李 그게 무슨 말이야요?

崔 글썄요, 보아 가노라면 알겠지

老 (응 하고 입맛을 다시며 돌아 앉는다) 응 응

崔 아무 效力이 없는 것이다. 只今 文明한 世上에는 強制로 婚姻시키는 법이 없나니 우리의 婚姻行爲는 當然히 無效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대를 미워하여 그림이 아니라 實로 法律이 이리함이니, 이로부터 그대는 나를 지아버로 알지 말라. 나도 그대를 아내로 알지 아니할 터이니, 이로부터 서로 자유의 몸이 되어 그대는 그대 같 데로 갈지어다.<sup>12)</sup>

영준이 이씨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부모의 강제에 의한 혼인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과, 문명한 세상에는 강제로 혼인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영준의 태도를 제대로 된 근대적인 자유의사의 표현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혼인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지금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나이에 시집와서 갖은 고생을 한 이씨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진정한 자유의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의 강제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영준의 자유의사일지라도 그러한 자유의사가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자유의사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씨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근대적 의미의 자유의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의사를 들어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영준과, 자유의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이혼을 통고받은 이씨 사이의 거리는 결코 소통되지

12) 이광수, 앞의 책 535면

못하는 두 사람의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최소한 이혼의 이유조차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 남성 지식인의 위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구여성을 ‘사람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극에서 영준이 구여성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근거는 근대적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실상은 <어린 벗에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규한>과 같은 해에 발표된 <어린 벗에게>에서는 이미 결혼한 임보형이 김일련에게 애정 고백의 편지를 쓴 후, 기혼자인 자신이 다른 처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 부분을 보면 영준의 혼인무효 편지가 결국은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지를 써 놓고 나는 再三 생각하나다. 이것이 罪가 아닐까. 나는 벌써 婚姻한 몸이라 다른 여자를 사랑함이 罪가 아닐까. 내 中心에서는 惑은 罪라 하고 惑은 罪가 아니라 自然이라 하나이다. 내가 婚姻한 것은 내가 함이 아니오, 나는 男女가 무엇이며 婚姻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前에 父母가 任意로 契約을 맺고 社會가 그를 承認하였을 뿐이니, 이 結婚行爲에는 내 자유의사는 一分도 들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나의 幼弱함을 利用하여 第三者가 強制로 行하게 한 것이니, 法律上으로 보든지 倫理上으로 보든지, 내가 이 行爲에 대하여 아무 責任이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契約的 行爲가 내 意思에 適合한 줄로 여기는 時는 그 行爲를 是認함도 任意여니와 그것이 나에게 不利益한 줄을 깨달을진댄 그 契約을 否認함도 自由라 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내는 조금도 우리의 夫婦契約의 拘束을 받을 理가 없을 것이라, 다만 父母의 意思를 존중하고 社會의 秩序를 근심하는 好意로 그 契約—내 人格을 蹂躪하고 侮辱한 그 契約을 눈물로써 默認할 따름이여니와 내가 精神的으로 다른 異性을 사랑하여 蹂躪된 權利의 一部를 主張하고 掠奪된 享樂의 一部를 回復함은 堂堂한 吾人

의 權利인가 하나이다. 이 理由로 나는 그를 사랑함이요—더구나 누이와 같이 사랑함이요—또 그에게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려 함이 決코 不義가 아니라고 斷定하였나이다.<sup>13)</sup>

여기에서 임보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구속적인 결혼의 부당성과 사랑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다. 이러한 임보형의 입장은 <규한>에서의 영준의 입장과 동일하다. 자신의 혼인이 자기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계약에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광수에게서 조혼을 부정하는 논리는 사랑의 근대적 형태인 낭만적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나치게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강하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는 발견할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위주의 사랑일 뿐인 것이다.

<규한>은 영준으로 대표되는 근대지식인들의 여성관과 결혼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 남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지 않고 구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구조는 구여성의 처지에 동정하게 되고, 구여성에게 자유의사의 문제를 들어 이혼을 선언하는 근대적 지식인 영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구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변화에 직면한 여성들의 상황이 드러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광수가 주장하는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여성의 비참한 상

13) 이광수, <어린 벗에게>, 앞의 책 77면

황이라는 구조로 극을 전개시키면서 극의 말미에 영준의 편지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광수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여성들간의 토론이라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준을 직접 극에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영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시키며 대신 극의 말미에 영준의 편지를 배치하여 자신의 의도를 직접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규한〉은 극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준이 극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영준이 극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광수의 의도된 극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준이 극에 직접 등장하게 되면 영준과 구여성 이씨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되며, 이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는 영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즉 영준이 직접 등장하게 되면 이광수가 주장하는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구여성 이씨의 처지에 대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는 영준을 극에 직접 등장시키는 대신 영준의 편지를 극의 말미에 배치하여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는 방식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한〉은 갈등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극은 영준의 편지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영준의 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구여성들의 한탄으로 전개되던 극의 흐름은 매과가 등장해 이웃여인이 유학생 남편에게 이혼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같은 유학생 남편을 둔 구여성이라는 처지는 극에서 복선의 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이씨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이 누그러지며 영준의 편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극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그러면서 극은 자연스럽게 편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며, 편지를 보낸 영준의 의도와 편지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이러

한 구성은 편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여 편지의 내용에 대해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준은 극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극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며,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가부장제와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해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규한>에서 이광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봉건적 결혼제도이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한 여성이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아닌 경우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러면서 부인 이씨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영준을 극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영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고 대신 영준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근대적 결혼관을 직접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4. 여성의 탈주체화와 향수로서의 여성

「문학이란 하오」<sup>14)</sup>에서 이광수는 소설이 문자로만 작자의 상상 내의 세계를 표하는 것과 달리 극은 실지의 형상을 무대상에서 연하는 것이므로 소설보다도 관객에게 주는 감명이 깊다는 언급을 보인다. 이는 극에 대한 장르론적 인식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극이 소설보다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의 신파극 공연을 접하면서 그 영향력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소설보다 관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극이라는 장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이 <규한>을 창작하게 된 배

14)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매일신보』, 1916.11.10~23.

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규한>에서 이광수는 여성에게도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으며, 구여성들조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애국계몽기 여성의 교육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던 시기에서부터 여성교육에 관한 주장은 항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이익과 국권의 회복을 위한 현모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광수에게 여성의 교육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성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 드러난다.<sup>15)</sup> 이광수에게 여성교육은 현모로서의 역할보다 양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현모로서의 개념을 강조하던 애국계몽기의 여성 교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지점에서 이전시기의 여성교육과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sup>16)</sup> <규한>에서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여성교육은 결국 주로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었던 당대의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과 그다지 거리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과 동일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이 이

15) 이광수가 제기하는 여성의 문제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결혼 이전인 1910 년대의 작품에서는 주로 봉건적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가 신여성 허영숙과 결혼한 1920 년대 이후의 글에서는 모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얘기하는 여성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여성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6) 개화기 이전의 여성은 유교적 가정에 필요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지에 적합한 여성으로 교육받았으며, 개화기 이후에도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남성의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한정되었다. 남성들의 눈이 비친 개화기 여성교육의 목적은 현모양처를 육성하려 했던 가정 내에서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전통시대가 지향했던 바와 같다. 최경숙, 「개화기의 여성교육론」, 『외대논총』 18집 II,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2.



광수가 주장하는 여성의 근대화이며 근대화된 여성의 모습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은 결국 남성 중심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광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의 교육도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여성교육의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화기 대부분의 남성들은 새로운 근대적 가치관과 함께 그들에게 손해 볼 것 없던 봉건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식 아내와 신여성을 첩으로 둔 상황들은 봉건적 가치관과 완벽하게 결별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결합해야 하는 남성들의 입지를 상징하고 있다.<sup>17)</sup> 이광수의 경우도 개화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처럼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광수 또한 봉건성과 결별하지 못한 채 근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봉건성과 근대성이 혼재한 남성중심적 여성관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여성교육은 여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남성을 위한 여성교육,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의 여성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광수가 제시하는 교육받은 여성은 신여성과 구여성의 미덕을 함께 지닌 인물로, 이는 장편 <무정>의 선형이 교육받은 신여성이지만 영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지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신여성들의 글이 ‘여성의 자아의식의 확대’<sup>18)</sup>라는 근대적 여성주의 입장을 보이는 지

17) 남성들과 달리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는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들보다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자신의 어정쩡한 선택에서 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결정에 분명한 가치를 결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처럼 신구의 양면을 절충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했다. 김진숙,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205~206 면

18)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점과 대비를 보인다.

1910년대의 이광수는 기존의 봉건적 제도를 부정하고 서구문화를 도입한 근대로의 변혁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다. 「조혼의 악습」, 「혼인에 대한 관견」, 「혼인론」 등의 논설에서 그는 봉건적 결혼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혼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혼관은 여성교육에 대한 그의 주장과 연결되는데 그가 「혼인에 대한 관견」에서 밝힌 것처럼 ‘당자 상호간의 연애가 혼인의 근본요건이라면, 그 연애의 전제가 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戀愛의 根據는 男女 相互의 個性의 理解와 尊敬과, 따라서 相互間에 일어나는 熱烈한 引力的 愛情에 있다 하오. 母論 容貌의 美 音聲의 美 舉動의 美 等 表面的의 美도 愛情의 重要한 要件이겠지요마는 理智가 發達한 現代人으로는 이러한 表面的의 美만으로는 滿足하지 못하고 더 깊은 個性의 美—즉, 그의 精神의 美에 恍惚하고사 비로소 滿足하는 것이지요 外貌의 美만 取하는 것은 아마 動物的 又は 原始的의 愛겠지요. 進化한 戀愛의 特徵은 熱烈한 感情의 引력과 明哲하고 冷靜한 理智의 判斷이 平行하는데 있다 하오. 가장 잘 教育을 받은—즉, 가장 健全하게 發育한 青年男女의 戀愛는 이러한 것인가 하오.<sup>19)</sup>

「혼인에 대한 관견」에서 이광수는 혼인의 조건으로 건강과 발육, 경제적 능력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연애를 들고 있으며, 그 연애의 전제로 여성의 교육이 놓인다. 그러나 신여성을 탄생시킨 조건이 근대 교육만이 아니었듯이, 구여성을 생장케 한 조건 역시 근대 학문에의 무지만이 아니었다.<sup>20)</sup>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19) 이광수, 「婚姻에 대한 管見」,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1, 43면.

20) 권보드래는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76면)에서 ‘신식 교육은 다만 명분이었을 뿐, 신여성과 구여성은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전혀 다른 감각과 윤리와 습관을 체화시키고 있는 존재였으며, 구여성일지라도 신식 교육만 받으면

전혀 다른 감각과 윤리와 습관을 체화시키고 있는 존재'인 구여성과 신여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육을 통해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는 지나친 일반화이다. 이는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교육의 목적이 진정한 여성을 위한 교육이었는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여성의 근대화는 여성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치체계라기 보다는 남성이 선택한, 남성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이다. 이 경우 남성이 모든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된다<sup>21)</sup> 여성의 교육이라는 지점도 남성이 선택하고 결정한 범위에서의 교육인 것이다. <규한>의 여성들은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남편의 말과 시선이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를 뿐이다. 이혼 결정도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것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남성뿐이다.

<규한>에 등장하는 여성은 사회적 공간에 놓여있는 여성이 아니라 가정 안에 놓인 여성이다. 남성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전개시키면서 한 명의 주체로서 세계의 발전에 참여하는데 반해 여성의 활동은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으로만 머무르게 되고 남성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사노동에만 여성의 역할이 한정된다. 즉 주체로서의 남성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비주체적인 노동인 가사노동에만 여성의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남성은 주체화되지만 여성은 탈주체화 되는 것이다<sup>22)</sup>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

- 21) 이러한 결정권은 바로 보호하는 자의 결정권으로 보호하는 자는 보호받는 자는 보호 받는 자를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의 결정권을 박탈한다. 보호받는 자는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호자는 보호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대상들을 대신해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결정권 행사란 바로 지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종영,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1면
- 22) 이종영, 앞의 책 36면

1910년대의 이광수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부정하고 서구문화를 도입한 근대로의 변혁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다. 「조선 가정의 개혁」에서는 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의 가족 관계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가정에서 전제군주와 유사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비판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 각각의 개인적 인격을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은 자신의 구상을 자식들에게 부과할 권력을 갖는다. 즉 가부장은 자기 자식들을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가족질서에 부합되게 결혼시킬 계획을 갖고, 또 그 계획을 순조롭게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느닷없는 사랑의 침입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엎는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침범에 대비해 가부장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여자와 남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sup>23)</sup> 이광수는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근대적 교육을 통해 남녀가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진정한 가부장제의 해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주장하는 근대적 가정내에서도 가부장의 역할은 여전히 존속된다. 새로운 가정에서도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여전히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망은 여성들에게 자립적 개인의 이념을 적용하기를 거부한다.<sup>24)</sup> 자기를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지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sup>25)</sup> 이는 가부장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여성에 대한 자신의 지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23) 이종영, 앞의 책 118면

24) 이종영, 앞의 책 162면

25)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법칙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즉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관성의 한계 내에서 자기만의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종영, 앞의 책 179면

이 같은 논리를 통해 이광수는 여성을 근대의 바깥에 위치지우는 향수로 서의 여성<sup>26)</sup>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광수의 근대의식의 측면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의 권위에 대해 부정하며 새로운 가족질서를 주장하는 지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근대 이전에 기득권을 누렸던 계층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윤리관을 주장하는 지점이 이광수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봉건적 질서 속에서 약자의 입장이었던 여성문제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관점과 그다지 거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교육은 이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과 지적 인 능력이 요구되었다는 지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이라는 지점에서 동일하다. 서구학문을 배우는 것을 통해 전 근대적 질서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것이 여성들의 바람이었다면 이광수는 서구학문을 배운 여성을 가정 안에 가두어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는 <규한>에서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여성의 교육과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시기 이광수의 논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광수는 ‘남자를 교육하는 것이 夫나 父되기 위하여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의 교육도 母나 妻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sup>27)</sup>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완전한 사람’ 이라기보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성지식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근대라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시도하며 근대적 시각을 드러내지만, 여성에

26) 리타 펠스키, 앞의 책, 69~104면

27) 이광수, 「婚姻에 대한 管見」, 앞의 책, 45면

대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비판하면서 근대적 여성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근대적 교육의 측면을 첨가한 정도의 여성상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규한〉은 이광수가 자신의 논설을 극이라는 영향력이 큰 장르를 통해 구체화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을 갈등구조로 가져가지 않고 여성들이 대화를 통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극의 말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규한〉은 근대적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근대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성 교육에 관한 문제도 교육의 기회나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신규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근대적 결혼에 대한 주장도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남성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선언하는 것으로 근대적 결혼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규한〉은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근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하고 단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극의 요건을 근대적 의식과 근대적 형식의 문제로 볼 경우 근대의식의 측면은 근대극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이다. 〈규한〉은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명백한 근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남성 중심적 시각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극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1910년대 희곡사에서 이광수의 <규한>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광수의 <규한>은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조혼과 여성의 교육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이후 여성과 결혼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초기희곡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측면과 지식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는 <규한>을 통해 그가 논설을 통해 주장하던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극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에 대한 자신의 논설을 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광수는 구여성을 극에 중심에 놓고 그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라는 구조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는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여성교육은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었던 당대의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과는 그다지 거리를 보이지 않는다. 이광수가 말하는 교육받은 여성은 구여성의 미덕을 함께 지닌 인물로 결국 교육받은 구여성인 것이다.

근대적 여성교육의 문제와 함께 <규한>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봉건적인 결혼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을 주장한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은 한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규한>의 인물들은 구여성들로 이광수의 의도를 대변하는 근대적 지식을 가진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영준의 경우도 극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결혼에 관한 그의 의사를 전달할 뿐이다. 이는 영준이 무대에 직접 등장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피해자로서의 구여성과 이혼을 선언하는 가해자로서의 지식인이라

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며, 피해자인 구여성에게 이혼은 선언하는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작가가 영준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광수는 영준을 직접 등장시키는 대신 영준의 편지를 극의 결말 부분에 배치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광수는 <규한>에서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봉건적 결혼제도의 타파와 여성의 교육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하고 개인사적인 측면과 결부되면서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라는 방향으로 귀결시켜 버리고 만다. 서구학문을 배우는 것을 통해 전근대적 질서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것이 여성들의 바람이었다면 이광수는 서구학문을 배운 여성을 가정 안에 가두어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광수의 근대의식은 남성중심적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이광수, 규한, 근대의식, 근대적 교육, 근대적 결혼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이광수, 『이광수전집』, 삼중당, 1971.

### 2. 단행본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205~206면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출판부, 1996.  
양승국,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2001,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이두현, 『한국신극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6.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이종영,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1.  
리타 켈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3. 논문

- 김영민, 「춘원 이광수 문학의 근대성 연구」,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337~364면  
서연호, 「한국신과극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69.  
송명희, 「“규한”과 1910년대 혼인관」, 『여성문제연구』 18집, 효성여자대학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0. 251~260면  
송인자, 「개화기 언론에 나타난 여성 교육론」, 『교육연구』 창간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1.8. 111~130면 39~54면  
이배용, 「한국 근대사회 전환과 혼인제도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23,24 합집 이화사학연구소, 1997.12. 39~54면  
\_\_\_\_\_, 「한국사속에서 여성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전근대사회로부터 개화기까지」, 『여성학논집』 14,15 합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8.12. 171~194면  
이승희, 「초기 근대희곡의 근대적 주체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2집, 2000, 1~37면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여성』,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161~207면  
최경숙, 「개화기의 여성교육론」, 『외대논총』 18집 II,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2. 31~53면

## Abstract

## Study of Modern Consciousness Appeared in the Drama, &lt;Gyuhan&gt;

Lee, Jeong-sook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 of <Gyuhan (閨恨)>, a drama written by Lee Gwang-su, in view of drama history in 1910s. The work of Lee Gwang-su, <Gyuhan> can be considered as a remarkable drama having drawn attentions in perspective of that this work had suggested a direction of early drama in which such issues as education for women and early marriage were focused as a theme of the drama with a role of revealer of the problems related to early marriage and women's education which were raised as the major points in social dispute in those days, and also that the drama had been evolved in terms of women-centric, rather than men, that is to say, the intellectual.

Also, <Gyuhan> may be considered to have been written by an intention to demonstrate the issues, such as modernized education for women and modernized marriage which had been advocated by Lee Gwang-su in his editorial essays, through means of a large genre, called drama with more detailed manner. Therefore, the drama consists of a structure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perceive the necessity of modern education by themselves through dialogues, instead of making the drama develop by means of a structure of conflicts, and also it includes a plot, at the end of drama, having a dialogue that argues the necessity of modernized marriage on the basis of individual free will.

In drama <Gyuhan>, a modern consciousness in terms of pursuing a modernized way of marriage and of arguing the necessity of modernized education for women has been clearly revealed, however, it just argues its necessity rather than proposing a solid direct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Concerning the issues of the education for women, the

drama, rather than proposing an opportunity or direction of education for women in different status, reveals an prospect that every female can be reborn as a new woman of modern century, through education, not having considered the differences between women of old age and of modern age. With regard to contends for modernized marriage, there hasn't showed any considerations for women who will be damaged by divorce. In the position of men, so to speak, the intellectual, a possibility for modernized marriage will be open by proclaiming a divorce, but, for women, the divorce can never be a solution for anything.

Although the drama, <Gyuhan>, reveals a modern consciousness in terms of pursuing a modernized way of marriage and modernized education for women, however, it doesn't bring up such a problems to the level of common issues in the society, and after all, it has just come to stop at the degree of arguing the necessity of those in perspective of male centric society. When we view the requirements of modern drama in terms of issues of modern consciousness and format, the aspect of modern consciousness is very important node in connection with formation of modern drama. Although <Gyuhan>, the drama of Lee Gwang-su, has exhibited a clear modern consciousness in view of modernized education for women and modernized marriage, it seems that, however, it has only revealed a limit that confined in the prospect focusing on male.

Key words: Lee Gwangsu, Gyuhan, Modern Consciousness, Modern Education, Modern Marriage

접 수 일 : 2004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4년 3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3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3월 30일(편집위원회)

к с і